한국문학번역원 번역지원 신청요강 발표해 · 외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원장 박환덕)이 기존의 한국문학번역금고와 문예진흥원의 한국문학해외소개사업부문을 통합해 한국문학 해외 번역·출판을 지원하는 2001년도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에 관한 신청요강을 발표했다. 신청기간은 8월 15일까지며 발표는 10월 초 예정이다. 요강은 다음과 같다. ▲지원부문 :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권의 현대 문학작품과 고전 ▲지원대상 : 한국인 및 해당 언어권 외국인 ▲지원금 : 1천5백만원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연장 가능 ▲제출서류 : 번역지원 신청서, 공동번역자 이력서, 작품선정경위서, 번역계획서, 원작자동의서, 번역 희망작품 번역원고, 기타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 ▲중간보고 : 번역지원을 받은 사람은 번역지원금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번역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및 중간번역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732-1442, www.itikorea.net

한국출판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 부설 교육기관인 한국출판아카데미가 오는 6월 19일부터 3개월에 걸쳐 제5기 출판편집자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제5기 출판편집자과정은 20여명의 강사진이 출판론, 기획론, 편집과 제작론, 마케팅과 광고론, 디자인론, 저작권론, 출판의 미래와 전망 등 총 7과목, 27강좌로 강의·진행한다. 수강료는 45만원이다.

⇒3444-0623

2001 영월책축제 열려

영월책박물관(관장 박대헌)이 주최하는 〈영월책축제〉가 지난달 26일 영월책박물관에서 개막됐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책과 장서표'를 주제로 판화가 이송열씨가 시전지에 문화·예술계 인사 15명의 친필 작품과 장서표를 결합해 제작한 〈책의 꿈, 종이의 멋 — 이송열 시전지·장서표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다. 시전지는 시나 편지 등의 소중한 글을 쓰는 용지며, 장서표는 책의 임자를 나타내기 위해 책에 붙이는 쪽지로,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글자와 그림이 어우러진 작은 판화로 꾸몄다. 이날 개막식에는 사랑의 문화봉사단이 광전리·옹정리 주민을 위해 〈관굿 비나리〉와 〈마당극〉을 벌였고, 퍼포먼스 〈발자국〉, 서울독서교육연구회가 구연한 〈별밤 이야기〉, 별밤 극장에서 '추억의 영화상영'이 이어졌다. 27일에는 '그림책 세계의 새로운 이해'와 '영월책박물관과 지역문화'를 주제로 각각 북디자이너 정병규씨와 전경수 교수(서울대 인류학과)의 강연회가 열렸다.

⇒www.bookmuseum.co.kr

200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세미나 열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윤양중)가 주최한 '간행물의 부당 표시·광고 실태와 개선 방향'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 달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설승현 생활경제국장이 '간행물의 부당 표시·광고 실태와 문제점'으로, 한양대 조병량 교수(광고홍보학과)가 '간행물 광고의 개선 방향'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으며 오후에는 연세대 서정우 교수(언론홍보대학원장)의 사회로 주제 토론을 벌였다.

한국출판협동조합, 대통령 표창 수상해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최선호)은 지난 5월 21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제13회 〈2001 전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지원 우수단체 부문의 최우수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최선호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조합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조합의 경영 효율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수상 소감 및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밝혔다.

《나무도감》 출판기념 원화전시회 개최

도서출판 보리(대표 정낙묵)는 6월 5일부터 10일까지 《나무도감》과 《갯벌에 뭐가 사나 볼래요》 출판기념 원화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나무도감》의 세밀화를 그린 이제호씨의 작품 67점과 서해 갯벌풍경을 담은 이원우씨의 원화 18점을 전시한다. 행사기간에는 작가와 화가의 사인회 및 간담회가 열리고, 도서출판 도토리의 대표인 심조원씨가 책의 제작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외 류창희씨(자연마당연구소 소장)와 조월례씨(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의 특별강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됐다.

⇒323-2653

교보문고, 20주년 기념 행사 열어

교보문고(대표 김년태)가 지난 6월 1일 개점 20주년을 맞이했다. 교보문고의 김년태 대표이사는 "올해는 교보문고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기업으로 성장한 지 만 20년이 되는 해다. 이는 또한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는 출발선상에서 세계적인 복합문화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의 변신을 의미한다"며 향후 교보문고의 새로운 변신을 예고했다. 이날 교보문고는 광화문점 고객을 대상으로 〈교보문고 역대 베스트셀러 1위 작가 사인도서 증정 행사〉〈역대 베스트셀러/연도별 언론사 10대 뉴스 전시회〉〈고객 독서 퀴즈대회〉〈분야별 유명 저자 1일 북마스터 행사〉〈교보문고 4행시 짓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했다. 또한 연중행사로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행사인 〈전국 계층별 독서 경진대회〉를 올 가을에 확대 실시하고, 7~8월 여름 방학 및 휴가철에는 철도청과 공동으로 〈책으로 떠나는 교보문고 문학 기차여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397-3431